원희룡 등 8명 예비경선 첫 관문 통과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발표

장기표·장성민·박진 탈락 TV토론 후 내달 4명 압축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황교안, 홍준표, 하태경, 최재형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예비후보 11인에 대한 1차 컷오프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2차 예비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장기표, 장성민, 박진 후보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1차 컷오프에서 11명 중 8명을 선별했다. 컷오프는 당원 20%,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3~14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8명의 순위나 획득한 여론조사 성적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오는 10월 8일 발표될 2차 컷오프로 쏠린다. 2차 컷오프에서는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후보들은 대선 도전을 멈추게 된다. 2차 컷오프에 앞서 국민의힘은 6차례의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컷오프에서 생존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사활을 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최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지난 14일 자신의 대선 캠프를 해체하는 결단을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대선레이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입당 당시에만 해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경선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유력 주자들에 비해 두각을 내지는 못했다. 2차 컷오프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는 만큼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주자들도 2차 컷오프까지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차 컷오프에 앞서 실시되는 방송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검증무대라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대비해나가는 분위기다.

원 전 지사는 2차 컷오프 진출이 확정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확실한 승리 카드 원희룡의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으로 2,3차 경선에서도 선의의 비전 경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교체의 동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카드다.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4·3배보상 차등지급, 특별법 취지 어긋나"

김부겸 총리 대정부질의 답변 "특별재심 계속 밀고 나갈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제주4·3 배보상 차등지급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배보상금 차등지급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번 정부 예산에 1810억원의 배보상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지급 문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이 4·3특별법의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4·3배보상은) 4·3이라는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역사를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갈 힘과 공동체적인 숭고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이지만,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을 제외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특별재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재심 문제는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논란이 일자 최종 논의에서 2530명 모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주4·3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되게 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만4명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이낙연, 도민 행복 만들 유일한 후보"

제주도민 1만4명 지지 선언 4·3특별법 국회 통과 등 강조

제주도민 1만4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숙·고태순·고현수·김경미·김희현·문종태·박호형·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 등은 15일 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1만4명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후보는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당 대표 시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제 더 나아가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선거가 어렵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야당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후보가 필요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후보에게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고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장에 함께 한 이낙연 후보의 배우자 김숙희씨는 "제주에서 1만명이 넘는 분들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여러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제주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온라인과 ARS 투표를 시작한다. 이상민기자

지능형 풍력발전설비 통합모니터링 플랫폼

에너지공-에이투엠 협약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는 지난 14일 에이투엠(주)(이하 '협약기관')과 내년 3월까지 지능형 풍력발전설비 통합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풍력발전기 41기(국내 6번째 규모)와 ESS 27MWh, 태양광발전 1.5MW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된 설비 중에는 20년 이상 경과 되거나 노후로 고장이 잦고 예비품이 단종된 설비가 많다. 이로 인해 복구 대응이 늦어져 전력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시간 ▷풍력발전단지 상태 모니터링 및 설비 진단 ▷자재 입출고 관리 및 통계 ▷작업자 안전상태 점검 ▷설비점검 현황 분석 ▷풍력발전기 점검 이력별 전력생산 손실금 추정 및 실시간 운영실적 보고 ▷최적 유지보수 의사결정 매뉴얼 제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진행했다. 고대로기자

허향진 "보수 재건 대선·지선 반드시 승리"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취임 "청년·지역 인사 적극 영입"

허향진(사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15일 "보수 재건을 통해,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취임한 그는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위해 위원장 직 제의를 받아들였다"면서 "현 정권에는 적과 동지만 존재할 뿐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와 제주지역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된 이유를 밝혔다.

허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불공정하고 무모한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직무대행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인해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있다"며 "치유는 커녕 결정된 국책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할 동력이 없고 새로운 혼란과 실망만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청년은 물론 모든 분야의 지역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은 최근 당무감사를 통해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9일 허향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바로잡습니다 본보 9월 15일자 5면 '코로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봇물' 제하의 기사 중 이의신청 '9790건'은 '979건', 오프라인신청 '1203건'은 '1만2037건'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